

[ 사회 ]

# DMB 보며 운전...GPS 믿고 위험한 질주 차량 400만대 '달리는 폭탄'

## 전남경찰청 "단속 카메라 피하는 장치 불법"

스피드브레이크 회사인 양모(50·광주 서 남구 봉선동)씨는 매주 골프장을 가는 길 고속도로에 올라서면 시속 160km 이상을 달린다.

승용차에 장착된 GPS는 "이 구간은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여주세요"라고 반복해 경고를 내보내지만 빠른 질주속에 폐감을 느끼는 양씨를 제하하지 못한다.

그가 속도를 줄이는 순간은 "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올 때 경찰의 스피드 건에서 나오는 신호음을 포착하는 순간뿐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차량에 장착된 GPS 등이 불법 부차물이며 단속대상인 줄도 모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위성수

신장치(GPS)의 차량 내 설치와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GPS와 차량용 길 찾기 장치인 내비게이션, DMB가 설치된 차량은 대략 400만 대 가량으로 사실상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운행 차량이라는 것이다.

자동차에 내장된 DMB 단말기는 주행중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출고돼 합법적이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내장형 장치를 주행중에도 작동되도록 개조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49조 ①항 4호)은 속도 측정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달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규칙(제29조)

도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와 주파수가 겹치는 무선장치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등이 달린 차를 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출시된 거의 모든 차량용 GPS 장치는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 주는 기능이 있어 불법 장치물"이라며 "DMB 단말기도 운전 중에 시청하면 안전운전에 큰 장애가 되는 만큼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GPS 등 위치만 탐지하는 차량용 텔레메틱스 장치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되 "단속 장치의 작동을 방해하는 장치"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 등 주요 대학들이 최근 잇따라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안에는 학생들의 3중고를 덜어 주는 방안이 담겨 있어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풀릴지 주목된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학생부(내신)·수능·논술 등 3가지를 모두 잘해야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가 그동안 엄청난 입시 부담을 겪어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12일 2008학년도 주요전형 계획을 발표한 연세대는 전 모집단위(의예, 치의예, 예체능 제외)에서 50%를 수능만으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수시모집 1차에서 학생부를 90%까지 반영하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유형을 마련해 250명 내외를 학생부(교과 80%+비교과 10%)와 인성면접(10%)만으로 뽑는 계획도 발표했다.

서강대도 이날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통해 정시 일반전형(전체의 40%)의 30%를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또 수시 2학기 학교생활우수자 특별 전형에 전체 1천670명 정원의 5%를 배정, 1단계로 내신을 평가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심층구술 면접을 50%씩 반영해 선발하며 국제화 특별 전형에서는 내신없이 서류(30%)와 면접(70%)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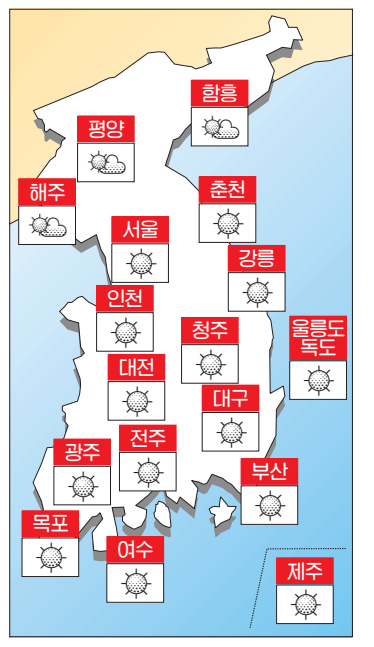
고려대도 앞서 지난달 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시모집에서 정원의 50%를 최저합격 기준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수시 2학기에서는 일반전형 응시자 중 수능의 수리 및 외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20%)와 논술(80%)로 뽑는다.

## 화창한 하늘

## 3월 13일

전국이 맑겠다.

광주	구름조금	1~13℃
대전	구름조금	2~12℃
대구	구름조금	2~12℃
부산	구름조금	1~13℃
인천	구름조금	1~13℃
서울	구름조금	-2~14℃
대전	구름조금	-2~13℃
부산	구름조금	-2~13℃
대구	구름조금	-1~13℃
전주	구름조금	-3~14℃
광주	구름조금	0~13℃
대전	구름조금	-1~13℃
부산	구름조금	0~12℃
대구	구름조금	-2~13℃
전주	구름조금	0~12℃
광주	구름조금	0~12℃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북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8:26 썰물 < 00:23  
여수 밀물 < 03:06 썰물 < 09:58

▲해돋이 06:47 ▲해질 18:38 ▲달돋 02:36 ▲달질 11:56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최저/최고	3/14	5/10	4/9	1/10	0/11	1/13

## 운전중 DMB 작동, 음주운전보다 위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 결과 ▲DMB 작동은 면허검지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DMB TV 시청은 면허검지 100일에 해당되는 0.05%의 음주

운전보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율은 70~72%였지만, DMB TV를 시청할 경우 50% 이하로 떨어진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수준이다. 시정 때보다 기기 조작 중 사고가 더 많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GPS 경보장치의 경우 단속카메라 100m 앞에서 정보를 보낸다. 하지만 차량 속도를 감안할 경우 '경보'를 듣고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 짧아 사고 위험이 크다.

## 대학 새내기 80% 부모 한자이름 못 써

20%는 본인 한자이름 몰라

대학 새내기 가운데 20%가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를 정도로 한자실력이 떨어졌어 전공과목 수강능력 저하까지 우려된다는 충격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사범대 이명화 학장(한문교육과)은 12일 "지난 5~6일 '기초 글쓰기' 과목을 수강하는 새내기 384명을 상대로 한자실력을 시험해 본 결과 이 가운데 20%(78명)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내기들의 실수 사례들을 보면 '은혜 은(恩)'을 '생각할 사(思)'로, '송나라 송(宋)'은 '글자 자(字)'로, '준결 준(俊)'은 '뒤 후(後)'

## 노래방 강도 잡는 경찰 1계급 특진키로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특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보의 지적(3월9일자 7면)에 따라 경찰이 연쇄 노래방 강도사건 해결에 특진을 내걸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광주시내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노래방 강도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진 대상은 경사→경위까지다.

광주시내는 지난해 12월28일 두암동에서 첫 노래방 강도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건의 동일사건이 발생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안이 컸다.



'푸른 서구' 만들기 광주시 서구청 직원들은 12일 오후 유덕동 광주시 환경관리공단 인근 영산강 둑에 배롱나무와 왕벚나무 120그루를 심는 올해 첫 식목행사를 가졌다. /최혜기자 choi@kwangju.co.kr

## 화순 환경미화원 '나이·학력 파괴'

응시자 64%가 20~30대 대졸이상 학력도 27%나

화순군이 최근 공모한 환경미화원 응시자 중 20~30대가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이 최근 환경미화원 6명을 뽑기 위해 공모한 결과, 246명이 응시해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47명, 30대 110명, 40대 89명으로 20~30대가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 29명 ▲중졸 26명 ▲고졸 114명이

## 초등 학생회장 선거도 '매니페스토' 운동 펼쳐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학생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꼭 지킬 것을 약속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펼쳐진다.

광주경정정의실천연합회는 12일 광주 시내 5개 초등학교를 매니페스토 시범 학교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 경실련이 광주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초등학교는 신항·장일·신안·불로·일곡초교이다.

이들 학교 학생회장선거에서는 출마 후보들이 선거 공약에 대해 반드시 이행할 것과 매월 이행결과를 발표할 것을 학생들 앞에서 선서하게 된다.

광주 경실련은 가장 먼저 신항초등학교와 13일 협약식을 맺고 초등학교들이 공약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후보자들의 선서식도 열 예정이다.

# 공인중개사

4월 2일 첫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 희소식 수요

기량주부 실업자 자영업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특별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성취도에 따른 개별 분석지도  
자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앞)

# 국가직/지방직 시험대비

9급공무원 전직렬 문제풀이

2007 공무원 대거채용 교정직 특채

개강: 4월 2일

#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앞 222-4560

---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 www.hanbitgosi.co.kr

# 2007 국가/지방직대비 공무원

800여명 2007년 상반기

한빛수업퍼펙트 = 문제풀이 한빛이 하면 다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4월 2일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2007년(上) 제17기

모집요강

1. 모집기간: 2007년 2월 5일(월)~3월 10일(월)

2. 모집대상: 2007년 3월 10일(월) 09:00, 서울·광주·대구·부산

3. 모집인원: 1단계 10명, 2단계 10명, 3단계 10명, 4단계 10명, 5단계 10명, 6단계 10명, 7단계 10명, 8단계 10명, 9단계 10명, 10단계 10명

4. 수업기간: 4월 1일(수)~4월 14일(토) 2주 16강

5. 수업장소: 1교차로 3000명, 2교차로 2000명, 3교차로 1000명

6. 접수처: 광주광역시 광안로 763-6 호반2차상자 2층 (첨단단지)

7. 합격기준: 1차: 60% 이상, 2차: 70% 이상, 3차: 70% 이상, 4차: 70% 이상, 5차: 70% 이상, 6차: 70% 이상, 7차: 70% 이상, 8차: 70% 이상, 9차: 70% 이상, 10차: 70% 이상

8. 학비: 2007년 7월 7일(수) 15:00

9. 원서접수: 2007년 3월 10일(월) 09:00~11:00

10. 시험: 2007년 3월 17일(토) 09:00~11:00

11. 합격자 발표: 2007년 3월 18일(토) 09:00

12. 합격자 등록: 2007년 3월 19일(토) 09:00

13. 합격자 수료: 2007년 3월 20일(토) 09:00

14. 합격자 이수: 2007년 3월 21일(토) 09:00

15. 합격자 졸업: 2007년 3월 22일(토) 09:00

16. 합격자 자격: 2007년 3월 23일(토) 09:00

17. 합격자 자격: 2007년 3월 24일(토) 09:00

18. 합격자 자격: 2007년 3월 25일(토) 09:00

19. 합격자 자격: 2007년 3월 26일(토) 09:00

20. 합격자 자격: 2007년 3월 27일(토) 09:00